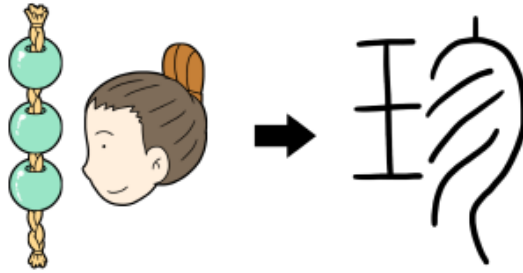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珍

보배 진

珍자는 '보배'나 '보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珍자는 玉(구슬 옥)자에 彡(술 많고 검을 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彡자는 머리의 술이 많고 윤기가 흐른다는 것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러니 珍자는 반짝이고 윤기가 나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珍자는 본래 보배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맛있는 음식을 보배에 비유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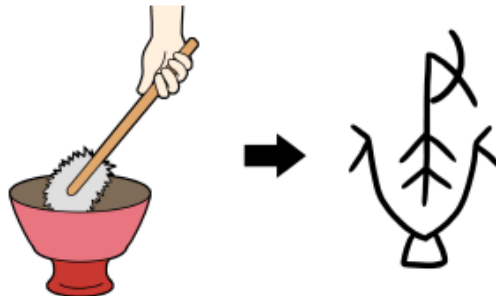
珍

소전

珍

해서

회의문자 ①



盡

다할 진:

盡자는 '다하다'나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盡자는 皿(그릇 명)자와 聿(붓 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술'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盡자는 이렇게 술을 들고 있는 모습에 皿자를 결합한 것으로 식기를 씻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식기를 씻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식사가 끝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盡자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까지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다하다'나 '완수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盡

갑골문

盡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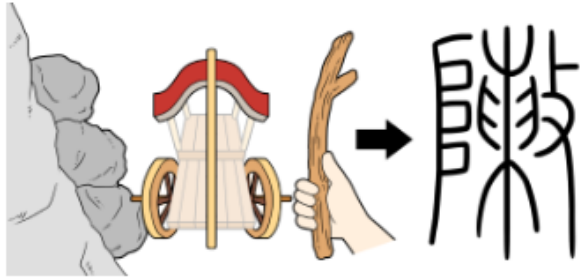
盡

소전

盡

해서

회의문자①



陣

진칠 진

陣자는 '진치다'나 '전쟁', '대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陣자는 阝(β : 언덕 부)자와 車(수레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車자는 바퀴가 달린 수레나 전차를 그린 것이다. 군대에서 사용하던 전차가 언덕 아래에 그려진 것은 전쟁에 대비해 방호벽을 쌓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攴(칠 복)자까지 있었지만, 해서에서는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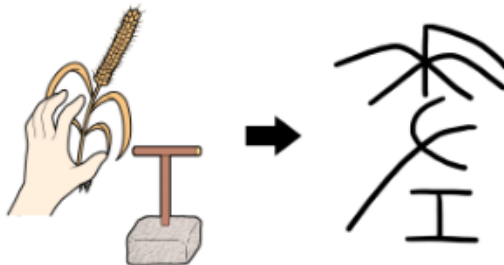
陣

소전

陣

해서

회의문자①



差

다를 차

差자는 '다르다'나 '어긋나다', '차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差자는 麥(보리 맥)자와 左(왼 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麥자는 '보리'를 그린 것이다. 금문에 나온 差자를 보면 왼손에 보리를 움켜쥔 差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손에 쥔 보리가 조금 짧으면서도 늘어져 있다. 이것은 다른 보리보다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差자는 이렇게 성장이 더딘 보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나 '차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差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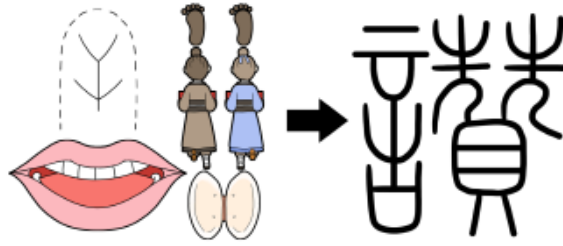
差

소전

差

해서

회의문자 ①



讚

기릴 찬:

讚자는 '기리다'나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讚자는 言(말씀 언)자와 贊(도울 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先자는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재물을 뜻하는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贊자는 선물(貝)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선물을 들고 높은 분을 찾아뵙는 모습으로 그려진 贊자에 言자가 결합한 讚자는 높은 분을 찾아뵙며 공덕을 칭송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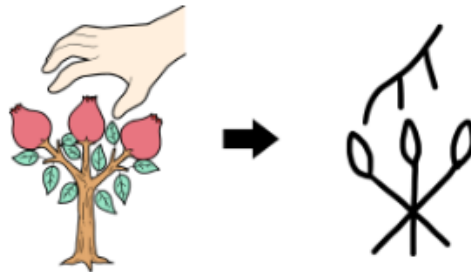
讚

소전

讚

해서

회의문자 ①



採

캘 채:

採자는 '캐다'나 '뜯다', '채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採자는 手(손 수)자와 采(캘 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采자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손으로 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캐다'라는 뜻은 采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手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採자가 '캐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딸 때는 잘 익었는지 또는 식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採자는 '캐다'라는 뜻 외에도 '고르다'나 '선택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採

갑골문

採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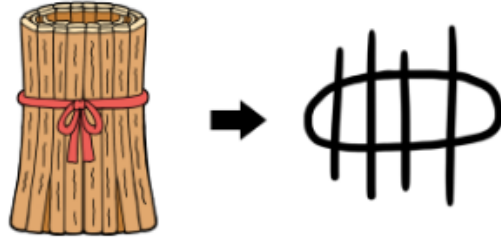
採

소전

採

해서

상형문자 ①



冊

책 책

冊자는 '책'이나 '문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冊자는 冂(멀 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멀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冊자는 죽간(竹簡)을 말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冊자를 보면 둥근 원 사이로 여러 개의 획이 冊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죽간을 말아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죽간은 많은 내용을 적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엮어서 이어 붙였었다. 기록을 마친 죽간은 둥글게 말아서 보관했는데, 冊자는 그것을 그린 것이다. 참고로 冊자는 册자로 쓰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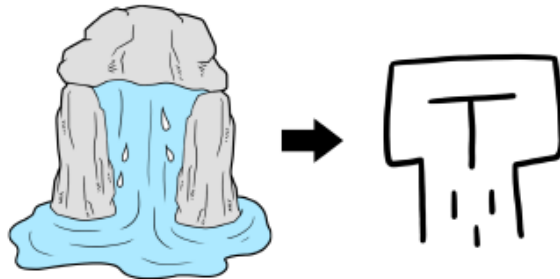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泉

샘 천

泉자는 '샘'이나 '지하수'를 뜻하는 글자이다. 泉자는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지금은 白(흰 백)자와 水(물 수)자가 결합해 있지만, 이것은 후에 한자화된 것일 뿐이고 갑골문에서는 돌 틈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泉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지금의 泉자는 해서에서 완성된 것인데, 白자는 '맑음'을 水자는 '물'을 뜻하니 어찌 보면 맑은 샘물의 의미도 잘 전달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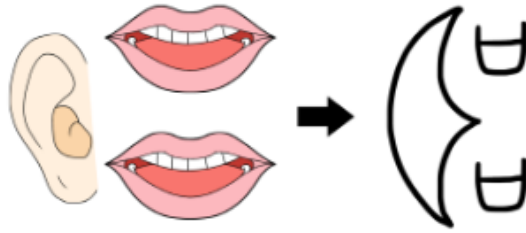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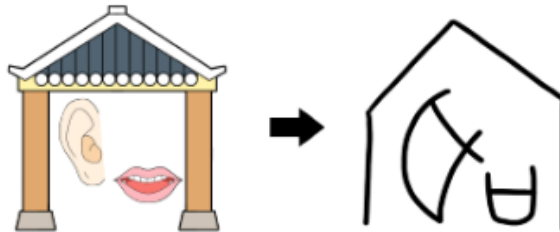
聽

들을 청

聽자는 '듣다'나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聽자는 耳(귀 이)자와 聿(천간 임)자, 惠(덕 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耳자에 두 개의 口(입 구)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口자는 생략되었고 대신 눈과 심장을 그린 惠자와 聿자가 더해지면서 '보고(直) 듣고(耳) 느끼는(心) 사람(聿)'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획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에서 '듣고 응서하고 살핀다.'까지 모두 표현하려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결합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廳

관청 청

廳자는 '관청'이나 '마루', '대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廳자는 宀(집 엄)자와 聽(들을 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聽자는 귀와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宀자가 결합한 廳자는 '목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廳자를 보면 宀(집 면)자와 耳(귀 이)자, 口(입 구)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방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聽자가 발음과 뜻을 대신하게 되면서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관아'나 '관청'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